

## 국방부, 하반기 장성급 인사 단행...정훈병과 첫 女장군 탄생(종합)

등록 2018.11.22 19:35:00



【서울=뉴시스】정부는 22일 하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고 합동참모차장에 원인철 현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임명했다. 2018.11.22. (사진=국방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종택 김성진 기자 = 국방부는 22일 중장급 이하 장성 진급과 주요 직위 보직 이동 등 2018년 하반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첫 장성급 인사로 창군 이래 정훈병과에 첫 여성 장군이 탄생하는 등 여군 2명 포함 79명이 별을 달게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원인철(57·공사 32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임명됐다.

육군 소장 김정수(육사 42기), 안준석(육사 43기), 이진성(3사 22기), 윤의철(육사 43기) 등 4명이 중장으로 진급했다.

김정수 중장은 진급과 함께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임명됐고, 최병혁(육사 41기) 중장은 5군단장에서 육군 참모차장으로 이동했다.

해군 소장 권혁민(해사 40기), 김종삼(해사 41기), 박기경(해사 40기), 이성환(해사 41기) 등 4명이 중장으로 진급했다.

권혁민 중장은 해군 참모차장으로, 박기경 중장은 해군 작전사령관으로 진급과 함께 각각 보직 이동했다.

공군에서는 황성진(공사 33기) 공군사관학교장이 공군 참모차장으로 이동했다.



【서울=뉴시스】창군 첫 여성 장군 정훈병과장에 발탁된 박미애 준장. (사진=육군 제공)

박미애(53·여군정훈 3기) 대령이 장군으로 진급하면서 1949년 육군 정훈병과 창설 이래 처음으로 여성 장군이 병과장에 임명됐다. 1986년 정훈병과가 여군에 문호를 개방한 이래 32년 만이다.

이번 인사에서 육군 준장 이규준등 10명, 해군 준장 강동훈등 8명, 공군 준장 강규식등 2명 등 20명은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과 함대 사령관 등 주요 직책에 임명될 예정이다.

육군 대령 강호필등 50명, 해군 대령 강동길 등 16명, 공군 대령 김경서등 13명 등 79명은 별을 달게 됐다.

국방부는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위주의 균형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非)사관학교 출신 중 우수자를 다수 발탁해 사관학교 출신 편중 현상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장성급 인사에서 비사관학교 출신 진급자 비율은 20% 후반대였으나 지난해 30%를 기록했고, 이번에는 32%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는 남녀 구분 없이 발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작년에 이어 여군 2명을 준장으로 발탁했다. 박미애 대령과 더불어 노경희 대령은 전투병과에서 역대 5번째 장군으로 진출했다.



【서울=뉴스시스】정부는 22일 하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고 육군참모차장에 최병혁 현 제5군단장을 임명했다. 2018.11.22. (사진=국방부 제공) photo@newsis.com

다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국방부 지원 부대(800부대)장 계급을 대령에서 준장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준장 진급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800부대장 계급은 대령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말은 직책에서 마지막까지 묵묵히 성실 복무한 인원을 다수 발탁했다"며 "앞으로도 우수자는 출신이나 성별, 특기 구분없이 중용되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엄정한 군 기강과 지휘권이 확립된 가운데 강한 정신무장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 청렴한 국방,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방, 방위태세를 완벽히 구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방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ohjt@newsis.com

ksj8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